

# 노후의 일·여가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 경향\*

## Preferences about Senior Congregate Housing by Attitudes on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홍형옥\*\*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유병선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Division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Hong, Hyung-Ock

Department of Child, Family and Housing Studies,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ou, Byung-Sun

---

### <Abstract>

Regarding leisure and work as very important in residential life of old ages, this study analyzed their preference by leisure and work for senior congregate housing, which can provide proper work and leisure activities for older people who are able to manage their social activities with healthy condition. It conducted a survey of middle aged of the 50's who would face problems of senior housing in 2010, with stratified sampling by region, sex and housing structure type. Totally 55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group which was positive toward their works mostly had spouse of the age of early 50's and work for professional, technological, managerial positions with good health. Second, the more positive group towards their work showed high willingness to move in senior congregate housing, than a negative group towards their work, and put a weight on the openness of shared space and facilities as well as various alarming equipments, common space, common programs and the ability of managers. Third, according to the attitudes toward leisure activities, there were differences in each group by housing structure type, education of their own or their spouses, monthly income, property, economic ability, health condition, living together with spouse, housing tenureship, and usable area of houses. The fourth was that those who enjoy active leisure activities presented high willingness to move in senior congregate housing than those of negative attitude and also there was a difference in managerial ways.

Throughout the results of the study, it appeared that a group of positive attitude toward work and leisure, than that of negative attitud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nior congregate housing which social and leisure programs could support. It implied necessary to develop housing for the older people who have enough ability to manage their leisure activity as well as their work. The study is likely to have a contribution to suggest practical data for helping the development of housing for self-reliant seniors by analyzing their preference on senior congregate housing by their attitudes toward work. The research for the factors of various designs and managements by leisure and work may become the following research theme of the study.

---

▲ 주요어(key words) :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 일 태도(working attitude), 여가 태도(leisure attitude), 선호(preference), 노후(later life)

---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저자 : 홍형옥 (E-mail : hong1215@khu.ac.kr)

## 1. 서 론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 등 선진국의 2-3배에 해당되며,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2032년에는 20% 이상이 되어 선진국형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 시설이 아닌 노인전용주택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주택은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능력 상실, 건강 악화,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한 허탈감, 상실감, 무력감을 감소시키므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보장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므로 노인주택은 노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에서 60세 이상 노인들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노인들 중 약 40%는 여건이 된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노인들만의 전용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노인주거시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 종교생활의 기회, 자원봉사자의 방문, 노인들끼리의 바둑대회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곧 노인주택의 개발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여가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과된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긴 시간으로만 인식되어 왔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를 선용하지 못하고 있다(강홍구, 2000). 또한, 전체 노인인구의 56.6%는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9%만이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노인이 여가활동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전용주택의 개발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애

물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일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 일, 여가와 주거조건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노후의 주거생활에 있어 여가와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주택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즉,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주거로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전용주택 개발에 있어 여가활동과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전용주택개발 및 관리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노후의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후의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노후의 여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노후의 여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는 어떠한가?

## 2.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정의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없는 주택유형으로 영국의 sheltered housing, 스웨덴의 service house, 미국에서는 congregate housing 또는 independent living 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된다. 나라마다 운영방식이나 지원서비스 개념 등에는 차이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은 노인의 자립의 유지·존중·탈시설을 목표로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나친 보호를 하지 않고 적절한 케어와 거주성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다. 그 범위는 노인만 거주하는 집합주택, 상주관리인의 배치, 노인용 특별설계, 긴급시의 통보시스템 등의 조건 중에서 한가지만 충족되면 보호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서비스 제공형식에 따라 category 1형, category 2형, category 2.5형이 있다(홍형욱, 2001). 민간에서 분양되는 보호주택은 retirement housing이라고 부른다.

스웨덴의 서비스주택(service house, servicehus)은 독립적인 개인주거와 각종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영국의 보호주택과는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주택의 기본 개념은 일상생활은 자기들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주택 내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다(Paulsson, 1996). 각 공간들은 노인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구성 및

1) 본 연구는 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노인주거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는 주택과 시설의 차이점은 주택은 개인적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용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동시에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시설은 정해진 서비스를 모두 똑같이 제공받는 개념으로 개별적인 생활이나 선택이 없다. 따라서 전용주거시설(facility)은 전용주택개념으로, 주거복지시설(institution)은 시설주거개념으로 구분한다.

물리적인 자립에 필요한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 레스토랑, 도서관, 이미용실, 취미생활공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홈헬프서비스나 간호 등의 서비스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유형은 노인공동주택(congregate housing, 민간 공급은 독립노인주거(independent living)라 부른다.)이 있다. 노인공동주택은 공공자금으로 건설, 서비스 시설이 있는 노인주택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이다. 독립성 있는 주택보장 및 식사서비스, 이동서비스, 청소 등의 가사보조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독립노인주택도 독립적인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지원서비스가 보장된 건강한 노인용 주거형식으로 민간에서 공급되는 중산층이상용 주택이다(대한주택공사, 1995). 최근에는 미국 노인복지국(Bureau of Elder and Adult Service)에서 노인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명칭을 CHSP (Congregate Housing Service Program)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강조한 IHSP(Independent Housing Service Program)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http://www.state.me.us/dhs/beas/policy\\_2003/2003/sec62.htm](http://www.state.me.us/dhs/beas/policy_2003/2003/sec62.htm)).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자립적 또는 약간 의존적인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유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과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건강하여 자립적인 노인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주택유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는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이란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아직 요양원(nursing home)에 갈 필요는 없는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유형 중의 하나로 접근성기준에 맞게 지어지며, 공유공간과 관리인이 있어 거주자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이나 사교·여가 프로그램 제공, 생활지원서비스 및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 일과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그 선호도가 어떨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후의 일과 여가

#### 1) 노후의 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있는 반면에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노인에 대한 시각은 부양이 필요하고 일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차원에서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서야 인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즉, 복지분야에서도 노후에 일을 함으로서 노인들 스스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의 노후생활비 마련을 도모하여 가족·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나 사업수입은 노인들이 자신을 부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건강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며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의 생산활동 참여는 습관성이 있어 평생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생계유지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윤경자 외, 2001).

노후의 일의 의미는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되고, 사회적으로 폐물시 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유용감과 자신감을 주어 일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여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김태현, 2001). 노인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대부분의 노인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8년도 조사에서는 79.3%가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999년 조사에서는 87.7%가 그렇게 응답하였다(변재관, 1999). 노인이 실제 일을 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표 1>, 이러한 사실은 노인의 일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1> 연도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 연도   | 55-59세 | 60-64세 | 65세 이상 |
|------|--------|--------|--------|
| 1990 | 68.6   | 53.8   | 26.1   |
| 1992 | 68.0   | 55.2   | 27.2   |
| 1994 | 68.2   | 56.7   | 27.3   |
| 1996 | 68.1   | 58.2   | 28.5   |
| 1998 | 66.1   | 55.5   | 27.5   |
| 2000 | 64.1   | 54.1   | 29.6   |
| 2002 | 64.7   | 55.8   | 30.7   |

자료: [http://www.nso.go.kr/cgi-bin/html-out.cgi?F=X6a96\\_128alc.html](http://www.nso.go.kr/cgi-bin/html-out.cgi?F=X6a96_128alc.html)

#### 2) 노후의 여가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는 여가는 일반적으로 일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틈을 뜻하는 것으로 여가가 갖는 시간적, 활동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으로 부르기도 한다(김외숙 외, 2000). 즉, 생존유지를 위한 생리적 활동과 생산적 활동 이외의 즐기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생산활동에서 해방된 노

인들은 여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면, 노후의 여가는 진정한 여가시간이라기 보다는 자유시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고령자에게 있어서 매일이 여가이므로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정기룡, 2002). 따라서 노인의 여가는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고독, 허탈감, 소외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주어진 시간을 소모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노인의 여가활동은 자신과 가정 및 사회에 이익을 주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유영주·김순기, 2000),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의 연장선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친구 / 친척집 방문, 집 보기,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집안일, 화투, 노인정, 노인학교 참여 등의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장인협·최성재, 1987, 김익기 외, 1999).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그 영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개인 중심의 소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는 첫째, 신체적 건강의 증진, 둘째, 사회적 접촉 기회의 제공, 셋째, 노후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의 증진, 넷째, 노인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다섯째, 유용감과 자기가치성의 확신, 여섯째,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일곱째, 재미있고 즐거운 삶의 영위 등이 지적된다(Leitner & Leitner, 1985; 김익기, 1999 재인용). 또한,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선미, 1991, 송정선, 1997, 홍성희, 1998). 따라서 적절한 여가활동은 노인의 생활에 만족과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여가활동은 지역사회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의 여가활동을 비교 분석한 일본 후생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제일 활동이 활발한 여가내용은 지역 자치활동인데 비해, 미국과 한국은 종교 활동이 높게 나타났고, 독일은 건강유지활동, 그리고 스웨덴은 취미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日本內閣府政策統官編, 2001; 정기룡, 2002 재인용).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들의 경험, 의식, 그 나라의 문화, 사회적인 여건, 가족구조와의 관계 등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는 노인전용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에 맞고 그에 따라서 노인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2. 노인의 일·여가와 주거조건과의 관계

노인의 여가나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거유형이나 주거소유형태와 관련성을 규명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아

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들의 정서를 지배하여 궁극적으로 주거유형이나 거주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거주자의 취향이나 관습과는 상관없이 획일화되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왕래가 힘들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최영순·박현옥, 1998)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의 경우 자연스러운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주변의 생활환경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까이 친척이 있거나 이웃에 노인이 많거나 노인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활동범위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웃에 친구가 없거나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가활동의 범위와 빈도, 노인들 간의 접촉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서병숙, 1991)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에 여가시설을 갖춘다거나 또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관계 전문가들은 노인공동작업장과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이 단순한 경노동 중심이고 일시적임을 지적하면서 자조적인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박재관,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는 주택대안으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와 같은 주택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는 노후에 모여서 한 주거단지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과 공간이 마련된 노인주거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작업을 통해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경우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와 같이 공동작업을 갖추 수도 있고, 관리자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노인 스스로 일과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전의 직업과 관련하여 여가와 봉사, 일과 여가를 겸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유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노년기에 있어서 일과 여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일을 통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으며, 소득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심리적 만족감 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0년도에 노인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50대(만 50세-59세까지)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배분은 지역별(강북, 강남, 강서, 강동), 성별(남, 녀), 주택유형

별(공동주택, 단독주택) 유층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600명이었으며, 부실한 기재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556부가 사용되었다. 설문의 정확한 응답을 기대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전공 4년제 대학 학생들이 예비 노인층을 직접 면담하여 실시하였으며, 1인당 조사소요시간은 40분 이상이였다. 질문지 조사는 2002년 11월 2일부터 2002년 11월23일 까지 이루어졌다.

연령에 있어 50대 초반이 70.9%, 50대 후반이 29.1%로 50대 초반이 많이 표집 되었다. 학력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대졸미만과 대졸이상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62.8%로 좀더 많이 나타났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12.78만원, 자산총합은 5.645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주관적 경제적 능력은 중 53.7%, 상 21.8% 차지하여 있어 본 연구대상자는 중류계층 이상이 많이 표집되었음을 보여준다. 건강상태도 건강 46.9%, 보통 45.5%로 건강은 양호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관계에 있어 자녀가 없는 경우는 2.2%에 불과하였으며, 주택의 소유형태는 대부분이 자가(82.1%)로 나타났다. 주택의 실제 사용면적 평균은 34.29평이다<표 2>.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56

| 변인                      |                            | f (%)      |
|-------------------------|----------------------------|------------|
| 성별                      | 남                          | 261(46.9)  |
|                         | 여                          | 295(53.1)  |
|                         | 계                          | 556(100.0) |
| 본인 연령<br>(평균 : 53.04세)  | 50대 초반                     | 394(70.9)  |
|                         | 50대 후반                     | 162(29.1)  |
|                         | 계                          | 556(100.0) |
| 배우자 연령<br>(평균 :52.78 세) | 50대 미만                     | 128(24.4)  |
|                         | 50대 초반                     | 219(41.7)  |
|                         | 50대 후반                     | 135(25.7)  |
|                         | 60대 이상                     | 43(8.2)    |
|                         | 계                          | 525(100.0) |
| 본인 학력                   | 대졸 미만                      | 321(47.9)  |
|                         | 대졸 이상                      | 233(42.1)  |
|                         | 계                          | 554(100.0) |
| 배우자 학력                  | 대졸 미만                      | 293(56.2)  |
|                         | 대졸 이상                      | 228(43.8)  |
|                         | 계                          | 521(100.0) |
| 종교 유무                   | 있다                         | 349(62.8)  |
|                         | 없다                         | 207(37.2)  |
|                         | 계                          | 556(100.0) |
| 본인 직업                   | 전문,기술,경영,관리직               | 147(27.0)  |
|                         | 사무,상공,자유,판매직,<br>기능,노무,농축업 | 203(37.2)  |
|                         | 전업주부,은퇴,무직                 | 195(35.8)  |
|                         | 계                          | 545(100.0) |
| 배우자 직업                  | 전문,기술,경영,관리직               | 108(21.2)  |
|                         | 사무,상공,자유,판매직,<br>기능,노무,농축업 | 218(42.7)  |
|                         | 전업주부,은퇴,무직                 | 184(36.1)  |
|                         | 계                          | 510(100.0) |

| 변인                              |              | f (%)       |
|---------------------------------|--------------|-------------|
| 직업생활 연수<br>(평균 : 20.73년)        | 20년 이하       | 217(42.9)   |
|                                 | 20년 이상       | 289(57.1)   |
|                                 | 계            | 506(100.0)  |
| 월평균 가계소득<br>(평균:412.78만원)       | 200만원 이하     | 124(22.5)   |
|                                 | 201~400만원 이하 | 237(43.0)   |
|                                 | 401만원 이상     | 190(34.5)   |
| 계                               | 551(100.0)   |             |
| 자산총합<br>(평균:5.645억원)            | 3억 이하        | 220 (40.4)  |
|                                 | 3억 초과5억 이하   | 141 (25.9)  |
|                                 | 5억 초과        | 184 (33.8)  |
| 계                               | 545(100.0)   |             |
| 주관적<br>경제적 능력                   | 상            | 121(21.8)   |
|                                 | 중            | 298(53.7)   |
|                                 | 하            | 136(24.5)   |
| 계                               | 555(100.0)   |             |
| 건강상태                            | 건강           | 261(46.9)   |
|                                 | 보통           | 253(45.5)   |
|                                 | 허약           | 42(7.6)     |
| 계                               | 556(100.0)   |             |
| 배우자동거<br>여부                     | 동거하지 않음      | 59 (10.9)   |
|                                 | 동거           | 484 (89.1)  |
|                                 | 계            | 543 (100.0) |
| 자녀 유무                           | 없다           | 12 (2.2)    |
|                                 | 있다           | 544 (97.8)  |
|                                 | 계            | 556 (100.0) |
| 주택의 소유 형태                       | 자가           | 449(82.1)   |
|                                 | 전세나 월세       | 98(17.9)    |
|                                 | 계            | 547(100.0)  |
| 주택의 실제<br>사용면적<br>(평균 : 34.29평) | 25평 이하       | 156(28.1)   |
|                                 | 26~35 이하     | 204(36.7)   |
|                                 | 36평 이상       | 196(35.3)   |
|                                 | 계            | 556(100.0)  |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질문 항목은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특성), 여가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후용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로 구성되었다. 답변된 내용 중에 여가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보통·소극적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일반적인 특징 및 노인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chi^2$ -검증과 ANOVA로 비교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는 성별, 연령(본인, 배우자), 교육정도(본인, 배우자), 종교 유무, 직업, 직장경력, 소득, 자산,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배우자동거여부, 자녀 유무, 주택소유형태, 주택사용면적을 조사하였다.

2) 일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는 노후에도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3>. '나는 내 노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적극성을 질문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총점은 5점에서 2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임을 의미하고, 신뢰도계수  $\alpha=0.6942$ 이었다. 응답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해 세 집단의 사례수 분포를 고려하여 집단을 적극적·보통·소극적으로 구분하였다<표 4>.

### 3) 여가에 대한 태도

여가에 대한 태도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노후의 여가활동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3>. 예를 들어 '나는 여가활동을 비교적 열심히 한다' 등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총점은 5점에서 20점 범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임을 의미하며, 신뢰도계수  $\alpha=0.7631$ 이었다. 태도에 대한 응답결과 빈도분석을 통해 세 집단의 사례수 분포를 고려하여 집단을 적극적·보통·소극적으로 구분하였다<표 4>.

<표 3>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문항

| 구분    | 질문 문항                                  |
|-------|--|
| 일 태도  | · 나는 내 노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노후에 할 일을 고려하여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다.      |
|       | · 나는 노후에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겠다.             |
|       | ·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
|       | · 나는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 하겠다. |
| 여가 태도 | · 나는 여가활동을 비교적 열심히 한다.                 |
|       | · 나는 여가활동을 집 밖에서 한다.                   |
|       | · 나는 여럿이 하는 여가활동을 한다.                  |
|       | · 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을 이용한다.            |
|       | · 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가시설을 이용한다.             |

<표 4> 일과 여가에 따른 집단 구분

| 구분    | 점수범위 | 사례수     | %   |       |
|-------|------|---------|-----|-------|
| 일 태도  | 적극적  | 15 - 20 | 146 | 26.6  |
|       | 보통   | 13 - 14 | 180 | 32.8  |
|       | 소극적  | 5 - 12  | 223 | 41.6  |
|       | 계    |         | 549 | 100.0 |
| 여가 태도 | 적극적  | 13 - 20 | 150 | 27.6  |
|       | 보통   | 10 - 12 | 201 | 37.0  |
|       | 소극적  | 5 - 9   | 192 | 35.4  |
|       | 계    |         | 543 | 100.0 |

### 4)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

노후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주거 유형,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주의사, 관리인에 대한 견해, 필요 서비스, 공유공간의 개방여부에 대한 의견,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요소(편리한 설계, 각종 정보장치, 공유공간, 공동프로그램, 식사제공, 관리인의 관리 능력)에 대한 중요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알아보았다.

## IV. 결과해석과 논의

### 1. 노후의 일태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후의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일반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니 배우자의 연령, 본인 직업, 건강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일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집단은 배우자의 연령이 50대 초반이 많이 분포된 반면(50.5%), 일태도가 소극적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50대 후반과 60대 이상의 분포가 많았다(43.0%). 본인의 연령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배우자의 연령에서 적극적 집단과 소극적 집단이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성향을 가진 집단의 배우자가 소극적인 집단보다 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는 배우자의 연령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인 직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집단은 전문·기술·경영·관리직이 많은 반면에 소극적인 집단은 은퇴나 무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이 없는 집단이 일태도에서 소극적인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선행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변재관, 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러한 것은 노후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인들이 일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대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에 대해 적극적인 집단은 건강상태가 좋은 반면에 소극적인 집단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즉, 노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간호와 부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후에 건강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노후의 일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 경향

일에 대한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입주의사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우선 입주의사에 있어서 소극적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집단은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입주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집단은 소극적인 집단에 비해 집에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일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주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관리인에 대한 견해, 공유공간 개방여부,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서는  $\chi^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입주의사에서는 차이를 뚜렷이 보였으나, 노인들이 노인전용주택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와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인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적극적인 집단과 소극적인 집단 간의 차이를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의 비율차이로 보다 세밀히 분석해 보면, 적극적 집단이든 소극적 집단이든 간에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관리인을 원하는 수가 가장 많았고, 소극적 집단은 관찰빈도가 기대빈도이상이었다. 적극적 집단은 공유공간과 시설의 개방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공동생활주택에 거주할 때 좋은 점으로 고독감 해소를 들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노인공동생활주택개발에 있어서 관리서비스수준 등은 다르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수준은 같게 제공하되 노인들의 성향에 따라 융통성 있는 운영방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 노후의 일 태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 일반적 특징    |                        | 집 단 | 적극적         | 보통          | 소극적         | 전체          | 비고                            |
|-----------|------------------------|-----|-------------|-------------|-------------|-------------|-------------------------------|
| 배우자<br>연령 | 50대 미만                 |     | 54 (25.7)   | 47 (27.0)   | 25 (18.5)   | 126 (24.3)  | $\chi^2=20.870^{**}$<br>df=6  |
|           | 50대 초반                 |     | 106 (50.5)  | 59 (33.9)   | 52 (38.5)   | 217 (41.8)  |                               |
|           | 50대 후반                 |     | 38 (18.1)   | 53 (30.5)   | 42 (31.1)   | 133 (25.6)  |                               |
|           | 60대 이상                 |     | 12 (5.7)    | 15 (8.6)    | 16 (11.9)   | 43 (8.3)    |                               |
|           | 계                      |     | 210 (100.0) | 174 (100.0) | 135 (100.0) | 519 (100.0) |                               |
| 본인<br>직업  | 전문, 기술, 경영, 관리직        |     | 72 (32.7)   | 51 (29.0)   | 21 (14.8)   | 144 (26.8)  | $\chi^2=24.735^{***}$<br>df=4 |
|           | 사무, 상공, 자유, 판매, 기능, 노무 |     | 89 (40.5)   | 62 (35.2)   | 50 (35.2)   | 201 (37.4)  |                               |
|           | 전업주부, 은퇴, 무직           |     | 59 (26.8)   | 63 (35.8)   | 71 (50.0)   | 193 (35.9)  |                               |
|           | 계                      |     | 220 (100.0) | 176 (100.0) | 142 (100.0) | 538 (100.0) |                               |
| 건강<br>상태  | 건강                     |     | 113 (50.7)  | 85 (47.2)   | 61 (41.8)   | 259 (47.2)  | $\chi^2=13.687^{**}$<br>df=4  |
|           | 보통                     |     | 98 (43.9)   | 86 (47.8)   | 64 (43.8)   | 248 (45.2)  |                               |
|           | 허약                     |     | 12 (5.4)    | 9 (5.0)     | 21 (14.4)   | 42 (7.7)    |                               |
|           | 계                      |     | 223 (100.0) | 180 (100.0) | 146 (100.0) | 549 (100.0) |                               |

\*p<.05 \*\*p<.01 \*\*\*p<.001

<표 6> 노후의 일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

| 일반적 특징             |                  | 집 단         | 적극적         | 보통          | 소극적         | 전체          | 비고                            |
|--------------------|------------------|-------------|-------------|-------------|-------------|-------------|-------------------------------|
| 입주<br>의사           | 있다               |             | 107 (48.0)  | 64 (35.6)   | 38 (26.2)   | 209 (38.1)  | $\chi^2=18.417^{***}$<br>df=2 |
|                    | 없다               |             | 116 (52.0)  | 116 (64.4)  | 107 (73.8)  | 339 (61.9)  |                               |
|                    | 계                |             | 223 (100.0) | 180 (100.0) | 145 (100.0) | 548 (100.0) |                               |
| 관리인에<br>대한<br>견해   | 낮에만 근무           |             | 26 (11.7)   | 16 (8.9)    | 8 (5.5)     | 50 (9.1)    | $\chi^2=6.619$ (n.s)<br>df=6  |
|                    | 2교대 24시간 근무      |             | 110 (49.3)  | 92 (51.1)   | 84 (57.5)   | 286 (52.1)  |                               |
|                    | 관리인이 필요한 때만      |             | 28 (12.6)   | 26 (14.4)   | 23 (15.8)   | 77 (14.0)   |                               |
|                    | 관리인의 24시간 상주     |             | 59 (26.5)   | 46 (25.6)   | 31 (21.2)   | 136 (24.8)  |                               |
|                    | 계                |             | 223 (100.0) | 180 (100.0) | 146 (100.0) | 549 (100.0) |                               |
| 공유공간<br>시설<br>개방여부 | 원함               |             | 66 (52.4)   | 48 (44.9)   | 39 (46.4)   | 153 (48.3)  | $\chi^2=1.465$ (n.s)<br>df=2  |
|                    | 원하지 않음           |             | 60 (47.6)   | 59 (55.1)   | 45 (53.6)   | 164 (51.7)  |                               |
|                    | 계                |             | 126 (100.0) | 107 (100.0) | 84 (100.0)  | 317 (100.0) |                               |
| 좋은 점               | 식사제공             |             | 39 (17.6)   | 29 (16.2)   | 27 (18.8)   | 95 (17.5)   | $\chi^2=6.419$ (n.s)<br>df=8  |
|                    | 고독감 해소           |             | 129 (58.4)  | 98 (54.7)   | 69 (47.9)   | 296 (54.4)  |                               |
|                    | 생활비 절감           |             | 11 (5.0)    | 14 (7.8)    | 12 (8.3)    | 37 (6.8)    |                               |
|                    | 관리인              |             | 41 (18.6)   | 38 (21.2)   | 35 (24.3)   | 114 (21.0)  |                               |
|                    | 안전               |             | 1 (0.5)     | 0 (0.0)     | 1 (0.7)     | 2 (0.4)     |                               |
| 계                  |                  | 221 (100.0) | 179 (100.0) | 144 (100.0) | 544 (100.0) |             |                               |
| 나쁜 점               | 자녀와의 만남이 어려움     |             | 96 (46.8)   | 83 (52.2)   | 62 (45.9)   | 241 (48.3)  | $\chi^2=2.889$ (n.s)<br>df=4  |
|                    |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움     |             | 53 (25.9)   | 38 (23.9)   | 30 (22.2)   | 121 (24.2)  |                               |
|                    |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음 |             | 56 (27.3)   | 38 (23.9)   | 43 (31.9)   | 137 (27.5)  |                               |
|                    | 계                |             | 205 (100.0) | 159 (100.0) | 135 (100.0) | 499 (100.0) |                               |

\*\*\*p<.001 n.s 유의한 차이가 없음

&lt;표 7&gt; 노후의 일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특성에 대한 중요도

| 일 태도 \ 디자인 특성 | 편리한 설계 | 각종 경보장치 |          | 공유공간   |          | 공동프로그램  |          | 식사제공  |        | 관리인 관리능력 |  |
|---------------|--------|---------|----------|--------|----------|---------|----------|-------|--------|----------|--|
|               | mean   | mean    | Scheff è | mean   | Scheff è | mean    | Scheff è | mean  | mean   | Scheff è |  |
| 적극적           | 3.29   | 3.34    | a        | 3.08   | a        | 3.16    | a        | 3.15  | 3.28   | a        |  |
| 보통            | 3.26   | 3.20    | ab       | 3.01   | ab       | 3.00    | b        | 3.05  | 3.26   | a        |  |
| 소극적           | 3.21   | 3.18    | b        | 2.88   | b        | 2.96    | b        | 3.05  | 3.10   | b        |  |
| F             | .692   | 4.233*  |          | 4.579* |          | 5.826** |          | 1.613 | 4.358* |          |  |

\*p&lt;.05 \*\*p&lt;.01

세 집단 모두 자녀와의 만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나쁜 점으로 지적한 빈도가 수적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소극적 집단이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대빈도보다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에 소극적인 집단이 더 보호욕구가 크고, 개방을 원치 않고 음식,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반면에 고독감해소에 좋고 공유공간도 개방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의사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노인공동생활주택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표 7>, 소극적 집단보다 적극적 집단에서 각종 경보장치, 공유공간, 공동프로그램, 관리인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각종 경보장치의 중요도도 높게 나타나 노인들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보장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유공간에 대해서도 적극적 집단이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일에 적극적인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공간 디자인 및 관리방안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 관리자의 관리능력에 대해 소극적인 집단보다 적극적인 집단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에 있어 관리자의 역할은 입주자의 일의 조직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며,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가 능력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노후의 여가태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노후의 여가태도에 따라서는 주택유형, 본인학력, 배우자 학력, 월소득, 자산,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배우자 동거여부, 주택 소유형태, 주택사용면적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표 8>. 여가태도가 적극적인 집단은 단독주택보다는 집합주택거주자가 많았다. 학력에 있어서는 배우자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기대비율보다 높게 적극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 자산도 5억초과 집단이 적극적 집단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능력은 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많았으며, 건강상태도 좋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택사용면적은 36평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극적인 집단의 일반적 특징은 집합주택거주자보다는 단독주택거주자가 많았으며, 학력은 본인과 배우자 학력 모두 적극적인 집단에 비해 대졸미만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월소득은 200만원이하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게 나타났으며, 자산은 3억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는 하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많았으며, 건강상태가 허약이라는 응답이 많게 분포되었다. 주택소유형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전월세의 비율이 높았으며, 주택사용면적에 있어서는 적극적 집단에 비해 25평 이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여가태도가 소극적인 집단은 단독주택거주자가 많고, 학력은 대졸미만이 많으며, 월소득과 자산이 적극적 집단에 비해 적어 적극적 집단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건강상태도 허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주택사용면적이나 소유형태에서도 적극적인 집단보다는 적은 평수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가 많게 나타났다. 여가태도에 적극적인 집단이 거주하는 주택유형, 학력, 월소득 및 자산, 건강상태 등에서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육수준이며,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는 선행연구(송정선,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노인전용주택에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주자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여가활동이 다르게 지원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또한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단독주택거주자보다 집합주택거주자가 적극적 여가태도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에서 집합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이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방해한다는 결과(최영순·박현옥, 1998)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진 집단이 집합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집합주택의 특성상 거주자들 사이의 접촉이 보다 빈번하여 함께 여가를 즐긴다거나 또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주변의 근린시설을 이용하여 여가생활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노후 주거유형으로 공동주택이 제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8> 노후의 여가 태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N (%)

| 일반적 특성   |             | 집단 | 적극적         | 보통          | 소극적         | 계           | 비고                            |
|----------|-------------|----|-------------|-------------|-------------|-------------|-------------------------------|
| 주택 유형    | 단독          |    | 61 (40.7)   | 90 (44.8)   | 104 (54.2)  | 255 (47.0)  | $\chi^2=6.774^*$<br>df=2      |
|          | 집합          |    | 89 (59.3)   | 111 (55.2)  | 88 (45.8)   | 588 (53.0)  |                               |
|          | 계           |    | 150 (100.0) | 201 (100.0) | 192 (100.0) | 543 (100.0) |                               |
| 본인 학력    | 대졸미만        |    | 87 (58.0)   | 101 (50.5)  | 123 (64.4)  | 311 (57.5)  | $\chi^2=7.744^*$<br>df=2      |
|          | 대졸이상        |    | 63 (42.0)   | 99 (49.5)   | 68 (35.6)   | 230 (42.5)  |                               |
|          | 계           |    | 150 (100.0) | 200 (100.0) | 191 (100.0) | 541 (100.0) |                               |
| 배우자 학력   | 대졸미만        |    | 73 (52.5)   | 96 (50.8)   | 118 (65.6)  | 287 (56.5)  | $\chi^2=9.406^*$<br>df=2      |
|          | 대졸이상        |    | 66 (47.5)   | 93 (49.2)   | 62 (34.4)   | 221 (43.5)  |                               |
|          | 계           |    | 139 (100.0) | 189 (100.0) | 180 (100.0) | 508 (100.0) |                               |
| 월소득      | 200만원이하     |    | 25 (17.0)   | 40 (20.0)   | 59 (30.9)   | 124 (23.0)  | $\chi^2=15.106^{**}$<br>df=4  |
|          | 201-400만원이하 |    | 59 (40.1)   | 90 (45.0)   | 81 (42.4)   | 230 (42.8)  |                               |
|          | 400만원 초과    |    | 63 (42.9)   | 70 (35.0)   | 51 (26.7)   | 184 (34.2)  |                               |
|          | 계           |    | 147 (27.3)  | 200 (100.0) | 191 (100.0) | 538 (100.0) |                               |
| 자산       | 3억이하        |    | 49 (33.8)   | 78 (39.6)   | 88 (46.1)   | 215 (40.3)  | $\chi^2=23.649^{***}$<br>df=4 |
|          | 3억-5억       |    | 32 (22.1)   | 44 (22.3)   | 63 (33.0)   | 139 (26.1)  |                               |
|          | 5억초과        |    | 64 (44.1)   | 75 (38.1)   | 179 (20.9)  | 179 (33.6)  |                               |
|          | 계           |    | 145 (100.0) | 197 (100.0) | 191 (100.0) | 533 (100.0) |                               |
| 경제적 능력   | 상           |    | 48 (32.0)   | 47 (23.5)   | 20 (10.4)   | 115 (21.1)  | $\chi^2=39.897^{***}$<br>df=4 |
|          | 중           |    | 70 (46.7)   | 121 (60.5)  | 102 (53.1)  | 293 (54.1)  |                               |
|          | 하           |    | 32 (21.3)   | 32 (16.0)   | 70 (36.5)   | 134 (24.7)  |                               |
|          | 계           |    | 150 (100.0) | 200 (100.0) | 192 (100.0) | 542 (100.0) |                               |
| 건강 상태    | 건강          |    | 84 (56.0)   | 93 (46.3)   | 77 (40.1)   | 254 (46.8)  | $\chi^2=14.288^{**}$<br>df=4  |
|          | 보통          |    | 56 (37.3)   | 99 (49.3)   | 93 (48.4)   | 248 (45.7)  |                               |
|          | 허약          |    | 10 (6.7)    | 9 (4.5)     | 22 (11.5)   | 41 (7.6)    |                               |
|          | 계           |    | 150 (100.0) | 201 (100.0) | 192 (100.0) | 543 (100.0) |                               |
| 배우자 동거   | 동거하지 않음     |    | 19 (12.7)   | 12 (6.5)    | 27 (14.1)   | 59 (10.9)   | $\chi^2=6.543^*$<br>df=2      |
|          | 동거          |    | 131 (87.3)  | 188 (93.5)  | 165 (85.9)  | 484 (89.1)  |                               |
|          | 계           |    | 150 (100.0) | 201 (100.0) | 192 (100.0) | 543 (100.0) |                               |
| 주택 소유 형태 | 자가          |    | 128 (87.1)  | 169 (85.4)  | 142 (75.1)  | 439 (82.2)  | $\chi^2=10.190^{**}$<br>df=2  |
|          | 전월세         |    | 19 (12.9)   | 29 (14.6)   | 47 (24.9)   | 95 (17.8)   |                               |
|          | 계           |    | 147 (100.0) | 198 (100.0) | 189 (100.0) | 534 (100.0) |                               |
| 주택 사용 면적 | 25평이하       |    | 32 (21.3)   | 57 (28.4)   | 63 (32.8)   | 152 (28.0)  | $\chi^2=23.211^{***}$<br>df=4 |
|          | 26-35평이하    |    | 50 (33.3)   | 65 (32.3)   | 86 (44.8)   | 201 (37.0)  |                               |
|          | 36평 이상      |    | 68 (45.3)   | 79 (39.3)   | 43 (22.4)   | 190 (35.0)  |                               |
|          | 계           |    | 150 (100.0) | 201 (100.0) | 192 (100.0) | 543 (100.0) |                               |

\*p<.05 \*\*p<.01 \*\*\*p<.001

그리고 여가태도가 적극적인 집단이 소극적인 집단보다 경제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여가활동을 스스로 즐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면서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관리방안이 노인공동생활주택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노후에 있어 여가가 주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도 여가활동에 소극적인 집단에 있어서는 이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주택개발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집단과 소극적인 집단간의 차이(배우자 연령, 본인직업, 건강상태) 및 여가태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주택유형,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는 특히, 일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주택개발에 있어 거주자인 노인 집단을 섬세하게 배려하여 경제적인 지원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조직하고 조절하는 관리자를 어떻게 교육하여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4. 노후의 여가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 경향

노후의 여가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고자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입주 의사, 관리인에 대한 견해, 공유공간시설 개방여부, 좋은 점, 나쁜 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9).

그러나, 기대빈도와 관찰빈도의 비율차이분석으로 적극적 여가활동형과 소극적 여가활동형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차이를 살펴보면, 적극적 여가활동형은 소극적 여가활동형보다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기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극적 여가활동형은 24시간 상주하는 관리인을, 적극적 여가활동형은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관리인을 원하는 경향이 기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유시설의 개방에 대해 적극적 여가활동형이 개방을 원하지 않는 응답이 기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이점은 적극적 일 활동형과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특징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에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여가활동형에 따라서는 각 집단의 일반적 특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에 비해 노인공동생활주택 디자인 및 관리요소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은 요구도 점수가 모두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적극적 여가활동형이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주의사가 높고 일에 대한 태도에서도 적극적인 집단이 소극적인 집단보다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주의사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집단은 소극적인 집단보다 사회적·여가적 프로그램이 지원가능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9> 노후의 여가 태도에 따른 노후용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

N (%)

| 일반적 특징       |                  | 집 단 | 적극적         | 보통          | 소극적         | 전체          | 비고                           |
|--------------|------------------|-----|-------------|-------------|-------------|-------------|------------------------------|
| 입주 의사        | 있다               |     | 64 (42.7)   | 74 (36.8)   | 72 (37.5)   | 210 (38.7)  | $\chi^2=1.412$ (n.s)<br>df=2 |
|              | 없다               |     | 86 (57.3)   | 127 (63.2)  | 120 (62.5)  | 333 (61.3)  |                              |
|              | 계                |     | 150 (100.0) | 201 (100.0) | 192 (100.0) | 543 (100.0) |                              |
| 관리인에 대한 견해   | 낮에만 근무           |     | 13 (8.7)    | 18 (9.0)    | 17 (8.9)    | 48 (8.8)    | $\chi^2=6.917$ (n.s)<br>df=6 |
|              | 2교대 24시간 근무      |     | 88 (58.7)   | 106 (52.7)  | 89 (46.6)   | 283 (52.1)  |                              |
|              | 관리인이 필요한 때만      |     | 19 (12.7)   | 31 (15.4)   | 28 (14.6)   | 78 (14.4)   |                              |
|              | 관리인의 24시간 상주     |     | 30 (20.0)   | 46 (22.9)   | 58 (30.2)   | 134 (24.7)  |                              |
|              | 계                |     | 150 (100.0) | 201 (100.0) | 192 (100.0) | 543 (100.0) |                              |
| 공유공간 시설 개방여부 | 원함               |     | 36 (43.9)   | 62 (50.0)   | 53 (50.0)   | 151 (48.4)  | $\chi^2=.900$ (n.s)<br>df=2  |
|              | 원하지 않음           |     | 46 (56.1)   | 62 (50.0)   | 53 (50.0)   | 161 (51.6)  |                              |
|              | 계                |     | 82 (100.0)  | 124 (100.0) | 106 (100.0) | 312 (100.0) |                              |
| 좋은 점         | 식사제공             |     | 22 (14.9)   | 35 (17.7)   | 36 (18.8)   | 93 (17.3)   | $\chi^2=9.973$ (n.s)<br>df=8 |
|              | 고독감 해소           |     | 80 (54.1)   | 113 (57.1)  | 97 (50.5)   | 290 (53.9)  |                              |
|              | 생활비 절감           |     | 10 (6.8)    | 16 (8.1)    | 12 (6.3)    | 38 (7.1)    |                              |
|              | 관리인              |     | 34 (23.0)   | 34 (17.2)   | 47 (24.5)   | 115 (21.4)  |                              |
|              | 안전               |     | 2 (1.4)     | 0 (0.0)     | 0 (0.0)     | 2 (0.4)     |                              |
|              | 계                |     | 148 (100.0) | 198 (100.0) | 192 (100.0) | 538 (100.0) |                              |
| 나쁜 점         | 자녀와의 만남이 어려움     |     | 66 (46.8)   | 85 (47.2)   | 90 (51.7)   | 241 (48.7)  | $\chi^2=3.608$ (n.s)<br>df=4 |
|              |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움     |     | 40 (28.4)   | 45 (25.0)   | 34 (19.5)   | 119 (24.0)  |                              |
|              |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음 |     | 35 (24.8)   | 50 (28.7)   | 50 (28.7)   | 135 (27.3)  |                              |
|              | 계                |     | 141 (100.0) | 180 (100.0) | 174 (100.0) | 495 (100.0) |                              |

n.s.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10> 노후의 여가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디자인 및 관리요소에 대한 중요도

| 디자인 특성 | 편리한 설계     | 각종 경보장치    | 공유공간       | 공동프로그램     | 식사제공       | 관리인관리능력    |
|--------|------------|------------|------------|------------|------------|------------|
|        | mean       | mean       | mean       | mean       | mean       | mean       |
| 여가 태도  |            |            |            |            |            |            |
| 적극적    | 3.24       | 3.23       | 3.01       | 3.07       | 3.10       | 3.19       |
| 보통     | 3.23       | 3.23       | 2.97       | 3.01       | 3.05       | 3.22       |
| 소극적    | 3.27       | 3.28       | 3.04       | 3.08       | 3.11       | 3.26       |
| F      | .209 (n.s) | .306 (n.s) | .782 (n.s) | .784 (n.s) | .491 (n.s) | .445 (n.s) |

n.s. 유의한 차이가 없음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후의 주택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편안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과 동시에 은퇴 후 노인들의 일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은 2010년도에 노인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주택유형별 유형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5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여가와 일에 대한 태도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얼마나 노후에 여가활동과 일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를 4점 척도로 5개 문항씩 질문하여 각각 점수범위는 5점에서 2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임을 의미하며, 일 태도의 신뢰도계수는  $\alpha = .6942$ , 여가 태도의 신뢰도계수는  $\alpha = .7631$ 로 나타났다. 집단은 각각 적극적·보통·소극적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후의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령, 본인 직업, 건강 상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일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집단은 배우자의 연령이 50대 초반이 많았으며, 본인 직업은 전문·기술·경영·관리직이 많았다. 또한, 일에 대해 적극적인 집단은 건강상태가 좋은 반면에 소극적인 집단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소극적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집단은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입주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 집단은 낮에만 근무하는 관리인을 원하는 반면 소극적 집단은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관리인을 원하였다. 적극적 집단은 공유공간과 시설의 개방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어 좋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극적 집단보다 적극적 집단에서 각종 경비장치, 공유공간, 공동프로그램, 관리인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셋째, 여가태도에 따라서는 주택유형, 본인학력, 배우자 학력, 월소득, 자산,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배우자 동거, 주택소유형태, 주택사용면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넷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적극적 여가활동형은 소극적 여가활동형보다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극적 여가활동형은 24시간 상주하는 관리인을, 적극적 여가활동형은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관리인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공유시설의 개방에 대해 적극적 여가활동형이 개방을 원하지 않는 응답이 더 많아 이점은 적극적 일 활동형과 반대의 성향을 보였다. 노인공동생활주택 특징의 중요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집단은 소극적인 집단보다 사회적·여가적 프로그램이 지원가능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에 대한 태도와 여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노인공

동생활주택의 관리방식에 있어 원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간과 관리인,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주택개발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장한 일과 여가태도에 따라서 집단간의 일반적 특징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거주자의 일반적 특징에 따라서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서 노후의 일과 여가활동을 다르게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후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노인들에게 일과 여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주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노인전용주택은 공동주택으로의 개발이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이들이 여가 활동이나 일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등이 연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여가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립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제안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경향을 일과 여가 태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일과 여가 태도에 따른 각각의 다양한 디자인 및 관리 요소에 대한 탐색은 후속연구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접수 일 : 2003년 07월 15일

심사 일 : 2003년 07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08월 24일

## [참 고 문 헌]

- 김애순(2000). 은퇴와 노년기 일의 의미. 노인복지정책연구, 17 163-189.  
 김의숙, 조희금, 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서울: 교문사.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 이연숙, 조성남(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김태현(2001). 노년학. 서울: 교문사.  
 대한주택공사(1995). 특수수요계층의 주거선호에 대응하는 주택건설 및 공급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박재관(2002). 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25-고령자 취업과 자원봉사활동, 7-177.  
 변재관(1999). 노인인력 활용의 활성화 방안-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99 겨울호, 91-131  
 송정선(1996).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김순기(2000).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000 봄호, 73-95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최성재(1998).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기룡(2002). 고령사회 일본의 노인문화. *일어일문학연구* 제44집, 291-311.
- 최성재(2000). 노인취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노인복지연구총서 17(노인 취업의 현황과 과제), 7-41
- 최영순·박현옥(1998). 주거환경 계획을 위한 거주자 요구조사. *한국주거학회지* 9(2), 79-87.
- 통계청 (<http://www.nso.go.kr>)
- Bureau of Elder and Adult Services (<http://www.state.me.us>)
- 통계청(2000). *장래인구추이*.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홍형욱(2001). 영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49-68.
- Paulsson, J.(1996). New concept and design of housing for the frail elderly in Sweden. 1996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7-32.